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 (2)

-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원리2: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라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제안할 때, 기회를 잡는 일(timing)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기회를 잡지 못해 좋은 계획을 사장시켜버렸던 적이 있는가?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2장 11절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삼일에 … 나갈때”. 그는 삼일 동안 멈추어 있었다. 느헤미야는 요란한 입성(entrance)을 하지 않았다. 깃발들을 흔들며대거나, 악단이 연주를 하는 가운데 백마를 타고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왔소. 자 일을 시작합시다” 하고 공연하지 않는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일은 벽돌과 회반죽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삼일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 삼일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4가지 가능한 일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1. 아마 그는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 여행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왔다. 또 다른 지도력의 원칙은 당신이 지쳐 있을 때 결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그 결정은 그릇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피곤은 당신의 통찰력을 무디게 한다.

2. 그는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알고 있다.

3. 가장 가능성이 큰 일로서,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는 자신의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4. 그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왕이 보낸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낙담하고 용기를 잃은 도성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3일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 일이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되지 않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던 기존의 권력 집단이 “이 치가 도대체 왜 온 거지?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라고 의문을 품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삼일 동안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삼 일째 되던 날에 모든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된다. 사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는 심리학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지체했으며, 그래서 결국 그가 자신의 제안을 내놓을 때 이미 사람들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전도서 3장 7절은 말한다.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고”. 8장 6절 또한 말한다. “무론 무슨 일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시기’(right time)에다 동그라미를 쳐보라. 만약 당신이 삶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적절한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려야만 한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기회를 잡는 날카로운 감각을 지니고 계셨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 번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durano.com/moksin>).